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1호 【루게 제25274호】 주제105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경도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주제105(2016)년 5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의정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 승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명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시어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명도체제가 철저히 확립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조국땅위에 자력자강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만리마시대,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총정의 70일전투에로 불러 일으키시고 전례없는 기적적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진두지휘하시어 당 제7차대회가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최후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이며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필승불패의 명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장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환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에서 한 폐회사

김 정 은



대표자동지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열렬한 축원과 기대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물지 않을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소집되어 상징된 의정들에 대한 도의를 원만한 진행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대표자 동지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폐회선언을 앞두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준엄한 력사를 다시금 돌이켜보니 력사의 모진 풍파를 헤치며 강대한 이 조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교생이 한 교생을 다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평온한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가식

과 번심이 없이 령도자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다 먼저 떠나간 있을수 없는 혁명동지들의 이름과 모습들이 선히 떠오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였지만 총결기간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가 되어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귀중한 혁명전우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는 총결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습니다.

당 제 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실계도를 펼쳐놓았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강명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혁명적로선과 정책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전당, 전군, 전민을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초로 될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시라는것을 당규약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당의 의사를 모아 당중앙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습니다.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당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된것은 우리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나는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상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고통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실사몰이 쫓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합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는 대회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지닌 역사적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견결한 선봉투사가 되며 광범한 대중을 당대회 결정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무장력이 무적의 붉은 총창을 비껴들고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것입니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나는 모든 대표자동지들과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향없는 품격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 7차 대회가 내놓은 혁명적로선과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 폐막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기대속에 개막되었던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는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5월 9일 폐막되었다.

이날 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펼쳐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실재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새 차게 분출되는 속에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를 토의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동지가 하였다.

각 도당조직대표인 황병서동지, 전용남동지, 주영길동지, 리명길동지, 태형철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불타는 충정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직책인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천만군민이 실장으로 받들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명도력을 백방으로 높이 인민의 자주적인 꿈과 리상을 꽃피우고 주체조선

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가시는 최세의 정치가, 탁월한 령도자이시라고 격찬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오종출 7련대 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의 불길을 지켜올리시어 인민군대들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밖에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불패의 혁명적당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최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김일성-김정일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으로 무장하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최정에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층시들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선수로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적후비대, 최후대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청년들은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사회주의 미충선구자들로 자라났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있다고 금지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를 뒤흔드는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주체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속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온것처럼 앞으로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중앙의 령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4 번 으 로 계 속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 폐막



3 번 에서 계속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셨다.

대회장은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과 환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감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셨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인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판 선거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판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먼저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였다.

추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 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선거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에 대한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정무국이 조직되었다는 것이 통보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이 임명되었다는 것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겸임위원회 선거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제 7 기 제 1 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통보되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정

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를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회를 선언 하시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노래가 주악되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또다시 리쳐올리는 우렁찬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나아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의의깊은 대회합이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회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역력 기성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두면이 되어 준 승리자의 대회로,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적극 고무추동한 새로운 혁명적총진군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찬연한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 차 전원 회의에 관한 공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 차 전원 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 차 전원회의가 5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였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임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주체 105 (2016) 년 5월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 정 은

김 영 남 황 병 서 박 봉 주 최 룡 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김 정 은

김 영 남	황 병 서	박 봉 주	최 룡 해
김 기 남	최 태 복	리 수 용	김 평 해
오 수 용	곽 범 기	김 영 철	리 만 건
양 형 섭	로 두 철	박 영 식	리 명 수
김 원 흥	최 부 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 수 길	김 능 오	박 태 성	리 용 호
임 철 웅	조 연 준	리 병 철	노 광 철
리 영 길			

당 중앙위원회 부 장

김 기 남	리 수 용	김 평 해	오 수 용
김 영 철	리 만 건	리 일 환	안 정 수
리 철 만	최 상 건	리 영 래	김 정 임
김 중 협	김 만 성	김 용 수	

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 리 영 식

당 중앙위원회 정 무 국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 정 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 룡 해	김 기 남	최 태 복	리 수 용
김 평 해	오 수 용	곽 범 기	김 영 철
리 만 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위원

황 병 서	박 봉 주	박 영 식	리 명 수
김 영 철	리 만 건	김 원 흥	최 부 일
김 경 옥	리 영 길	서 흥 찬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홍인범

1부위원장 정명학

부위원장 리득남

위원

김영환 김금철 김용선 김명철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

정치국 위원들



김기남 동지



최래복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오수용 동지



곽범기 동지



김영철 동지



리만건 동지



양형섭 동지



로두철 동지



박영식 동지



리명수 동지

정치국 후보위원들



김원홍 동지



최부일 동지



김수길 동지



김능오 동지



박래성 동지



리용호 동지



임철용 동지



조연준 동지



리병철 동지



노광철 동지



리영길 동지

